

中國 延邊地區 朝鮮族의 마을과 주거*

金奉烈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1. 序論

1-1. 研究의 內容과 目的

울산대학교 한국건축연구소에서는 1993-1994년의 기간에 中國 吉林省 延邊 朝鮮族 자치주 일대의 마을과 주거에 관한 개략적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1) 조사 대상은 <그림-1>과 같이 延邊自治州 일대와 인접 黑龍江省의 1개소 등 총 16마을, 24호이다.

한국건축연구소의 중점 연구대상은 吉林省 龍井市 智新郷에 위치한 長財村의 마을과 주거였고, 본 지표조사연구는 長財村의 건축적 성격을 비교 고찰

하기 위해 시작한 보조연구였다. 조사 전에 延邊의 주거는 비교적 변화가 적어 한반도 주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으리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역적 차이나 시대적 변화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자료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따라서 대상의 선정과 조사가 절대적인 기준과 체계에 의해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을과 주거들이 예상보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그 변화와 다양성의 근저에는 조선족 이민사회가 겪어야 했던 역사적 정치적 변화와 이질문화와의 갈등이 내재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따라서 조사된 대상들을 단순 보고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고, 오히려 일정한 가설에 의해 체계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가설적 분석을 통하여 연변조선족 사회의 마을과 주거가 어떻게 정착 형성되었고, 시기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보존의 양상을 보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세기말-20세기 초에 걸친 개별이주 과정에서 유입된 한반도의 주거유형 - 주로 함경북도형 - 을 연변조선족 주거의 원형이라고 할 때, 그 이후 일제 식민기의 집단 이민과 중국 해방후의 사회주의적 격변기에 조선족의 주거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또한 국경에서

* 본 연구는 韓國學術振興財團이 지원한 '92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인 "中國 東北地方 朝鮮族聚落 및 住居에 관한 調查研究"의 일부임.

1) 한국건축연구소에서는 총 3차에 걸쳐 현지조사를 하였고, 그 가운데 본 연구는 1-2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1차조사는 1993. 2. 18 - 2. 28까지 임충신, 이규성교수가, 3차조사는 1994. 2. 17 - 2. 23까지 강영환교수가 담당하였다. 2차조사에는 울산에서 임충신, 이규성, 신재익, 김봉렬 4인이, 연변측에서는 연변대 김광택 교수와 연변대설계원 리택수원장, 그리고 다수의 현지 연구보조원들이 참여하였다.

떨어질수록 중국식 주거문화에 융화되어 가는 과정도 뚜렷하다. 본 연구는 몇개의 예를 들어 이러한 시기적, 지역적 전개과정의 대강을 정치경제사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현재 혹은 장래의 조선족 주거가 변화되어 갈 방향성을 진단하려 한다.

1-2. 研究의 觀點

연변조선족은 중국 내에 이주한 소수민족이며 주류 중국문화에 동화 흡수되기 쉬운 대상이다. 그들의 역사적 경험, 중국사회의 조건과 변화, 소수민족으로서의 사회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남한에 거주하는 우리보다 더 큰 문화적 변동을 겪어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²⁾ 따라서 조선족 주거연구에서 한반도 주거문화가 잃어버린 원형을 찾는 작업 못지않게 이질 사회 속의 문화적 충돌과 적응, 변화 등의 역동적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3개의 배경적 관점은 조선족주거형성과 변화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첫째는 조선족 사회 정착의 역사적 과정과 마을-주거유형과의 관계이다. 초기의 개별 이주단계에서부터 극도의 전체주의적 사회 환경을 거쳐 현재의 개체경영사회를 겪으면서, 마을의 구성형식과 주거의 내용은 어떠한 대응을 보여왔는가. 여기에는 시간의 축 뿐 아니라 지역적 차이도 동시에 내포되고 있다. 정착의 역사는 곧 지역별 이주와 개발의 순서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문화적 간여 - 특히 문화혁명과 같은 대격변-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는 전혀 다른 주거문화와의 접변을 통한 변화의 양상이다. 한족의 주거문화와 접촉을 통하여 조선족 주거의 어떠한 부분이 변화되었고, 어떠한 부분이 불변하는가를 살피는 일은 조선족 주거의

원형을 추적하는 작업과도 일치한다.

셋째는 개방 개혁 이후 중국현대화의 과정 속에서 조선족 주거가 변화되어 가는 방향성에 대한 탐구이다. 또한 소위 주택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延邊 조선족 주거문화 발전에 조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³⁾

물론 이러한 거시적 시야에서의 분석은 거주가족의 개체적 사항과 같은 개별적 대상의 특수성을 간과할 위험이 다분하지만, 짧은 연구기간과 개척적 연구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조선족 주거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3. 몇가지 用語의 定義

남한의 주거문화와는 판이한 역사적 정치적 환경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지의 용례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각 지역별로 용어의 차이가 많았고, 지식층과 주민들의 용어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식층의 용어는 중국식 용어를 기본으로 하여 남북한의 서적이나 연구 결과에 영향을 받고 있다.

마을의 구성 유형은 마을 개척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곧 '遷入'⁴⁾의 유형에 따라 '個別移住村'과 '集團移民村'으로 나눌 수 있다. '개별이주촌'이란 공식적으로 1875년 만주일대에 대한 '封禁'을 해제한 이후 1931년 일제에 의한 계획이민 전까지 개척된, 가구별 혹은 소집단별로 천입한 마을을 의미한다. '집단이주촌'은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 특히 1937-9년까지의 대규모 집단 이민정책에 의해 개척된 마을을 지칭한다. 해방⁵⁾ 이

3) 연구의 관점을 설정하는 데에 앞에 인용한 한상복교수 팀의 문화인류학적 연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앞의 책, 25-28쪽 참조).

4) 遷入이란 중국의 관점에서 본 조선족들의 이주, 이민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5) "해방"이란 일제의 패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공산혁명이 완료된 1948년을 의미한다. 연변지구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공산정권의 수립이 빨라 1945-47년을 해방으로 본다.

2) 한상복+권태환 : 『중국 연변의 조선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2, 22쪽. 한교수는 연변 조선족이 한국의 전통적 문화요소와 가치를 잘 보존하고있으리라는 예단은 상식의 허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표 1. 지표조사된 마을의 개관

조사 마을	개척시기	개척의 성격	가구수	인구
龍井市 智新鄉 長財村	19세기말	개별이주촌	120호	500명
	19세기말	개별이주촌	30호	90명
	20세기초	개별이주촌	30호	124명
	1975년	새마을	18호	60명
	20세기초	개별이주촌	200호	
圖們市 月晴鄉 白龍村	20세기초	개별이주촌	130호	360명
	20세기초	개별이주도시	4,200호	15,651명
汪清縣 東新鄉 太陽村	1936년	집단이민촌	103호	370명
	1920년대	개별이주촌	70호	
琿春市 敬信鄉 回龍峯村	19세기후반	개별이주촌	70호	370명
	19세기후반	개별이주촌	80호	400명
	1938년(?)	집단이민촌	30호	130명
安圖縣 福興鄉 福滿村	1938년	집단이민촌	80호	300명
	1939년	집단이민촌	86호	386명
	1970년대	새마을	96호	415명
	1968년	새마을	30호	110명
黑龍江省 永安市 渤海鎮 上京村	20세기초	개별이주도시	450호	1,760명

후 사회주의 개조단계를 거치면서 인민공사가 설치되고 이 시기에도 소위 '새마을'이 형성된다. 이 시기의 '새마을'은 집체 경영을 위해 기존 농경지 등에 새롭게 조성된 마을을 의미한다.

현지 학자들은 주거유형을 구조형식에 따라 '양통집'과 '외통집'으로 분류한다.⁶⁾ 이 분류는 북한 학계의 용례를 따른 듯하다. 그러나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현지의 목수들은 '양통집'의 용어개념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살림집은 당연히 양통집이기 때문에 '6간집', '8간집', 그리고 다른 계통의 구조인 '외통집'이 있을 뿐이다.⁷⁾ 본 연구에서는 편의를 위해

'양통집'과 '외통집'의 용어를 사용하며, '6간집' '8간집'은 양통집의 범주 안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연변학계에서는 주거유형을 문화권적 근원에 따라 '朝鮮式' '中國式' '半鮮半中式'으로 나누고 있다.

8) '조선식'이란 한반도에서 전래된 주거형식 가운데 연변주거의 주류를 형성하며 정착된 것을 지칭하며, 구체적으로는 정주간이 있는 함경북도 주거유형을 의미한다.⁹⁾ 본 연구에서는 더욱 포괄적 의

6) 박경휘 : 『조선족 민속연구』, 료녕민족출판사, 심양, 1987, 14쪽. 북한학자 리종묵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리종묵 : 『우리나라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과학원출판사, 평양, 1961). 리종묵의 분류는 남한에서도 김홍식교수 등에 의해 비록 출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별다른 이의없이 채택되고 있다.

7) 강영환교수의 천봉진 목수(장재촌 거주, 73세) 면담 결과.

8) 박경휘, 앞의 책, 49-53쪽.

9) 물론 지역별, 주민들의 출신지별로 차이를 보인다. 소위 남만주지역인 료녕성에서 조선식이란 평안북도형을 의미할 것이다. 또 초기에는 각지에서 이민은 조선족들이 그들 출신지의 주거형식에 형식에 따라 집을 지었고, 해방후 이른바 함북형이 주류를 이루면서 출신지의 주거형을 '조선집'이라 부르는 예가 빈번했다.

미로 '조선식'이란 함경북도형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이된 모든 주거형식을 지칭하도록 한다. '중국식'이란 연변지구에 존재하는 漢族들의 주거를 의미한다. '반선반중식'이란 '조선식'이 '중국식'과 접변하면서 발생한 절충적 유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한학계의 입장에서는 '절충식'으로 분류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주거의 원형적 형태를 '朝鮮式'으로, 중국적 요소가 가미된 것을 '折衷式'으로 지칭한다.

2. 마을과 주거의 概觀

2-1. 延邊朝鮮族 마을의 現況

延邊자치주의 행정단위는 5개 市, 3개 縣, 39개 鎮, 70개 鄉, 1,368개 村, 2,642개 자연屯(屯)으로 이루어진다.¹⁰⁾ 市는 延吉 琿春 龍井 敦化 圖們, 縣은 安圖 汪清 和龍이다. 다른 문헌에는 현재 2,522村과 103鎮이 있다고 하여 개별 마을의 수에는 통계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¹¹⁾ 평균 16 km²마다 1개의 村이나 鎮이 존재하는 셈이다.

마을들은 19세기 중반부터 최근까지 끊임없이 개척되어왔다. 최초의 마을은 1851-1862년 사이에 개척된 덕신향 석문촌, 후동, 금곡촌으로 전한다. 연구에 의하면 1875-1910년 사이에는 주로 국경에서 가까운 두만강과 해란강 일대에 399개촌이 개척되었고, 그 이후에 점차 대륙 깊숙이 지역적 범위를 넓혀간 것으로 나타난다. 1912-1931년 사이에 108개촌이, 1932-1945년 사이에 101개촌이, 그리고 1948년 이후에 42개촌이 개척된 것으로 나타난다. 12) 만주사변이 있고 일제의 滿洲國이 선 1932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마을을 개별이주촌으로, 그 이후를 집단이민촌으로 볼 수 있다. 이주 초기의 마

울들은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 같다. 현재의 마을지명 가운데 숫자로 표시된 영안향의 七戶洞, 천보산진의 九戶洞¹³⁾ 등은 개간 초기의 마을 구성호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이민 전까지는 새로운 마을을 개척하기도 했으나, 대다수 이주민들은 기존 정착마을에 천입하여 마을을 확장하였다.¹⁴⁾

개척시기가 전 시기에 걸쳐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마을들의 모습이 개척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토지개혁과 집체경영, 인민공사 등 사회주의적 개조와 실험 단계를 거치면서 마을 내 도로와 주택지의 재조정 등 근본적인 구조가 바뀐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해방 이전에는 개척의 역사로, 이후에는 변화와 개조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야 할 것이다.¹⁵⁾

延邊의 조선족 마을은 초기에는 조국의 가난과 박해를 피해서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개척되었고, 해방 이후의 사회주의적 변화를 겪으면서 인위적인 목적과 의도로 형성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성장한 마을들이 주류를 이루는 남한 마을의 구조와는 여러모로 대조를 이룬다. 마을 주민의 구성을 보면 첫째 씨족마을이 거의 없고, 둘째 친족 또는 공동체 의식이 미약하며, 셋째 양반촌, 상민촌 등의 계층적 구별이 없다.¹⁶⁾ 이러한 주민 구성의 성격은 물리적 평등성, 인위성 등을 규정한다. 대지의 균등한 분배에 의해 단위 주거들의 규모와 형태는 균질하게 구성되었고, 대지들은 격자구조와 같이 중심 도로 양쪽으로 일률적으로 배열된다. 그러나 漢族들의 마을과는 입지에서부터

11) 金熟輝 의 「發展中的延邊」(下), 延邊人民出版社, 1990, 92쪽. 103개 鎮이란 鄉소제지와 독립 鎮 모두를 합한 수치라 보인다.

12) 심혜숙 : 「중국 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분포」, 연변대학출판사, 1993, 18쪽.

13) 같은 책, 5쪽.

14) 같은 책, 33쪽.

15) 개척사에 대한 현재의 연구는 역사학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으나, 해방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건축학적 연구는 물론 역사학적 연구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0) 김순림 외 : 「오늘의 연변」(I), 연변인민출판사, 1991, 5쪽. 市란 도시지역 뿐 아니라 주변의 광범위한 농촌지역도 포괄하는 都農統合型 행정단위의 명칭일 뿐이다. 행정단위의 위계는 市, 縣 > 鎮, 鄉 > 村의 3단계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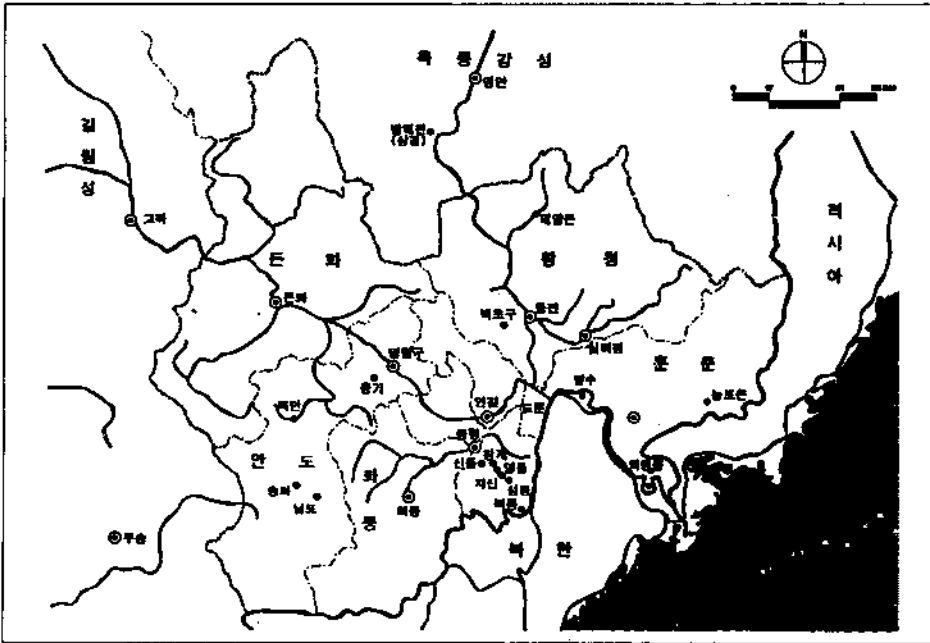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 조선족 마을 위치도

차이를 보이는 바, 한족마을은 평야 한복판 경작지 가운데에 자리를 잡지만 조선족 마을은 경작지 끝 산자락에 자리를 잡는다. 부득이 지형상 한족마을과 같은 입지를 하더라도 집마다 방풍림이 있어 한족마을과는 다른 경관을 이룬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지역에 가까울수록, 또 개척시기가 오래된 개별이주촌일수록 경사지를 등지고 넓은 들과 하천을 안고 자연스러운 마을을 구성하는 이른바 한국적 정취가 높아진다.

2-2 조사대상 마을의 개관

1차와 2차 현지방문에서 조사된 마을은 <그림-1>과 <표-1>의 17개 마을이다. 마을 개척유형으로 보면 1930년대 이전의 개별이주촌이 10개소이며 이 가운데 량수진과 상경촌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밀집단지이다.¹⁷⁾ 개별이주촌은 두만

강과 해란강 연안의 龍井, 圖們, 琿春 일대에 산재하여, 국경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 1930년대의 집단이민촌은 4개소로서 주로 안도현 일대 내륙 깊숙이 위치한다. 해방 이후 형성된 새마을은 3개소로서 기존 마을 사이에 개척되지 않은 지역에 점점이 위치한다.

마을 주민은 대부분 순수 조선족으로 구성되었으며, 도회적 구성을 보이는 량수진은 76%가 조선족이고, 집단이민촌인 북만촌은 순수 조선족마을이었으나 해방후 한족들의 유입으로 40%에 그치고 있다. 마을의 가구수는 개별이주촌인 경우 30-200호

17) 조사대상 중 개별이주촌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1차답사에서 마을전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개척시기가 오래된 마을, 2)주거의 원형이 잘 보존된 마을, 3)순수 조선족 마을 등의 기준으로 지표조사했기 때문이다. 조사된 표본들의 비율이 연변 조선족 마을의 전체 비율은 물론 아니다.

16) 한상복 외, 앞의 책, 149쪽.

로 다양한 크기이지만, 집단이민촌은 80-100호 정도로 통일되어 있다. 1936년부터 일제는 延邊 일대에 “100萬戶 移民計劃”을 세워 집단 이주를 강행하였고, “在滿朝鮮人 指導綱領”을 통해 이민구역과 이민수를 통제하는 계획이민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0호를 기준으로 한마을을 구성하여¹⁸⁾ 현재도 가구수는 그다지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새마을들은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기간에 집체경영을 목표로 형성되었는 바, 당시 농촌은 인민공사의 (小隊-大隊 규모로 조직되었다. 1隊는 3-40호, 14隊가 1大隊를 이루어 4-500호로 조직되었다. 새마을인 송화촌은 아직도 1隊로, 흥기촌은 3개隊로 유지되고 있다.

주민 수는 가구수에 따라 달라진다. 1호당 3-4인의 구성이지만¹⁹⁾, 북한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회룡봉촌과 벌동촌은 1가구당 5인 이상의 확대가족 양상을 보인다. 이 두마을은 교통이 매우 불편하여 延邊의 다른 지역과는 고립되어 있다. 조사대상 가운데 변화가 가장 적은 마을이다.

주민들의 직업은 거의 전업농이며, 도회지인 랑수진은 1/3이 鄉鎮企業 등에, 상경촌은 10%가 식당, 운수, 리발, 상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농포촌은 원래 전부 농가였으나 해방후 주변에 금광이 개발되면서 90%가 광업에 종사하는 특수한 마을이다. 농작물의 구성은 마을마다 차이가 많다. 개척 초기에는 水田(논농사)이 많았으나 점차 소득이 높은 旱田(밭농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전은 조선족의 전유물과 같이 인식되고 있다. 한전은 주로 담배, 옥수수 등 상품가치가 높은 작물들을 경작한다.

개척 유형이나 시기와는 관계없이 모든 마을들은 집촌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집합적 현상에는 초기 단계부터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개별이주촌의 경우 초기에는 매우 작은 가구들만이 모여있었으나, 일단 농사에 성공한 것이 이주희망자들에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점차 확대되어 갔다.²⁰⁾²¹⁾ 또 비교적 오랜 기간 같은 마

을에 거주함으로써 마을내의 통혼권이 형성되어 친족관계로 묶여나가 초보적인 혈연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반면 집단이주촌은 한반도 내 특정지역의 이주민들을 모집하여 동향인들끼리 마을을 개척하기 시작하여 애초부터 집촌을 이룰 수 밖에 없었다. 이때의 이주민들은 주로 경상도 전라도의 남부지방민들로 ‘무주촌’ ‘장수촌’ 등의 출신지별 동네를 형성할 정도였다. 조사대상 중 태양촌과 북만촌은 경상도민들, 남도촌은 전라도민들의 마을이었고, 농포촌은 한때 ‘엄촌’으로 불릴 정도로 엄씨들의 동족마을이었다. 해방 후의 새마을들은 앞서 말한 대로 집체경영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집단부락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

2-3. 調査對象 住居의 概觀

조사된 주거들은 <표-2>와 같이 총24호이다. 이 가운데 3호는 漢族들의 중국식 주거들로 비교를 위해 조사하였다. 조사의 초기목적이 현황 파악에 있었던 까닭에 특정한 관점에 의해 일관된 대상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략의 선정 기준은

19) 한상복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족의 평균가구원수는 1982년 4.29인에서 1990년 3.63인으로 줄어들고 있다. 또한 농촌가정의 핵가족화 비율은 66.3%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漢族에 대해서는 1가구1자녀의 엄격한 출산제한을 두고 있으나, 소수민족에게는 제한을 두고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조선족가정은 1자녀만을 고집하며 부부중심의 핵가족화 경향이 매우 높다. (한상복, 앞의 책, 123쪽).

20) 한상복 외, 앞의 책, 144쪽.

21) 金奎方 외, 앞의 책, 37쪽. 또 한가지 요인은 1910년대 중국이 실시한 토지정책의 특수성에 있었다. 중국당국은 이주민 중 階에 귀화한 사람에게만 토지소유권을 주었다. 귀화를 꺼려했던 조선족 사회는 대개 10명당 1명을 귀화시켜 귀화인의 명의로 토지를 공동 소유하는 소위 佃民制를 정착시켰다. 이는 협업농 체제의 근간이 되었으며 당연히 집단부락을 이룰 수 밖에 없었다.

18) 金奎方 외 : 『延邊經濟史』, 延邊人民出版社, 1990, 61쪽.

가지고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琿春 龍井 圖們 安圖 등 조선족 밀집지역을 택했으며, 예외적으로 黑龍江省의 상경촌 주거들은 延邊지역과 비교를 위해 선택했다. 주거의 나이는 되도록 이주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선택하려 노력했으나, 현존 주거들은 해방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 이어서, 해방 이전의 것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 마을의 개척시기와 일치하는 주거의 예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오래된 주거들이라 하더라도 해방과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겪으면서 많은 부분 개조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 건립 당시의 모습을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도시지역은 주거의 부족으로 인해 다세대로 분할확장되는 개조가 진행 중이며, 근교 농촌까지 이러한 경향은 파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된 대상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건립 년대 별로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延邊의 각시기는 서로 다른 역사적 정치 경제적 환경을 경험했으며, 마을개척의 유형에 따라 개별주거의 형식이 어느 정도 규정되어왔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 덧붙여 기존의 자료축적이 거의 안되어 있는 까닭에, 대상 주거들을 하나의 특정한 관점에 의해 일관된 분석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대상에 따라 역사성, 지역성, 국적성, 유형성 등 고유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시기적 주거형식의 변화를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고찰하고, 2) 구성 유형에 따른 주거의 고찰, 3)중국주거의 영향과 절충식주거, 4)도시화 현대화에 따른 주거 개량 방향 등 4가지 관점에서 대상을 분석한다.

延邊사회의 역사는 정치 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6-7시기로 구분되고 있다.²²⁾ 본 연구에서는 현지의

경제사 연구를 기초로 하여 조선족 사회의 정착과 변화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5시기로 나누었다.

- 1) 개별이주시기 : 19세기후반-1936
- 2) 집단이민시기 : 1937-1945
- 3) 사회주의 개조시기 : 1946-1957
- 4) 집체화와 새마을건설시기 : 대약진운동시기 (1958-1965), 문화혁명시기 (1966-1976)
- 5) 현대화시기 : 1976이후

5개의 시기구분에 따라 마을의 물리적 구성 뿐 아니라 대지의 규모와 형태에 큰 변화를 겪어왔다. 예를 들면, 개별이주시기에 개척된 마을은 일반적으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지만, 집단이민시기에 개척된 마을은 획일적 기계적으로 구성된다. 반면 해방 이후에는 새로운 마을 개척이 뜸해지고 기존마을과 주거를 개조 확대하는 선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해방 전과 비교할만한 유형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주거내부의 기능과 용도, 재료와 구조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시기별로 대표형을 추출할 만큼 많은 대상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크게 해방이전의 이민시기와 이후의 사회주의시기로 나누어 고찰한다.

-1976) ⑥ 4개 현대화시기 (1977이후). 김규방은 『延邊經濟史』에서 (14쪽) ① 청나라(-1931) ② 만주국시절(1931-1945) ③ 토지개혁 과 해방전쟁시기 (1945-1948) ④ 사회주의적 개조단계 (1949-1957) ⑤ 대약진과 국민경제 조절시기 (1958-1965) ⑥ 10년동란 문화혁명 (1966-1976) ⑦ 사회주의적 현대화 건설기(1976이후) 로 나누었다. 김숙휘 등은 『發展中的延邊』(下)에서 (92쪽) 해방 이후의 시기를 주택건설의 경과에 따라 ① 농촌주택 발전의 서막기(1946-52) ② 사회주의 건설과 주택발전기(1953-65) ③ 십년동란과 정체기(1966-76) ④ 재건과 신속한 부흥기(1976이후)로 나누고 있다.

22) 시대구분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박경휘는 『조선민속사연구』에서 (374쪽) 다음과 같은 6시기로 나눈다. ①반식민지 반봉건사회(19세기-1931) ② 식민지 통치기(1931-1945) ③ 국내해방전쟁시기(1945-1952) ④ 5개년계획 건설시기(1953-1966) ⑤ 문화혁명 동란기(1966

표 2 조사된 주거의 건립년대와 구조

소재지	집이름	건립년대	유형	지붕형태
琿春市 敬信鄉 發洞村	박동촌덕	1880년대	8간양통	팔작기와
龍井市 智新鄉 明東村	송명규고택	1910년대	8간양통	우진각기와
龍井市 智新鄉	초중사택	1920년대	7자양통	우진각기와
龍井市 智新鄉	김성칠택	1930년대	8간양통	우진각초가
圖們市 涼水鎮	주복녀택	1930년대	4간양통	우진각초가
圖們市 涼水鎮	송복송택	1930년대	6간양통	우진각초가
琿春市 馬邊道鄉 廣蒿村	최완삼택	1940년대	6간양통	맞배초가
琿春市 敬信鄉 回龍峯村	전순영택	1940년대	6간양통	우진각초가
龍井市 智新鄉	리희경택	1940년(?)	10간양통	팔작기와
龍井市 智新鄉 新東村	리만송택	1946년	8간양통	우진각초가
安圖縣 輝興鄉 輝滿村	김길영택	1950년대	6간양통	우진각초가
龍井市 智新鄉 新東村	리종석택	1950년대	4간외통	맞배초가
安圖縣 三道鄉 南道村	김덕수택	1955년대	3간외통	맞배초가
黑龍江省 洮安縣 上京村	한두현택	1956년	절충형	우진각초가
黑龍江省 洮安縣 上京村	리춘길택	1960년	절충형	우진각초가
安圖縣 三道鄉 南道村	박인선택	1957년	3간귀틀집	우진각초가
安圖縣 松江鎮 松花村	박성만택	1968년	3간외통	우진각합식
琿春市 敬信鄉 發洞村	박남선택	1972년	8간양통	우진각초가
安圖縣 三道鄉 南道村	한길용택	1978년	벽돌집	우진각기와
安圖縣 萬寶鄉 紅旗村	현명선택	1985년	벽돌집	팔작기와
安圖縣 萬寶鄉 紅旗村	최명팔택	1987년	벽돌집	팔작기와
和龍縣 臥龍鄉 嶺山村	葛常鍊택	1960년대	한쪽집	맞배초가
龍井市 光新鄉 光新村	壯學國택	1960년	한쪽집	맞배초가
黑龍江省 寧安市 鹿道村	張元潤택	1991년	한쪽집	팔작기와

3. 解放以前の 마을과 주거

3-1. 個別移住村의 마을과 주거

초기 이민들의 개별이주촌은 주로 산중턱이나 산 자락 끝에 입지 하였다. 경사지를 따라 주거들이 배열됨으로써 비교적 자연스러운 도로와 주거지로 구성되었다. 또한 일제기를 거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겨 마을 내에 대규모 지주집과 소규모 소작인 집이 섞이게 되었다. 대지의 합병과 변형에 의해

마을은 더욱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다.²³⁾

1930년대 이전의 주거형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예는 매우 드물다. 초기 정착단계에 세워진 주

23) 집중조사된 장재촌에서도 자연부락적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장재촌을 비롯한 대부분의 마을은 해방이후 토지개혁과 문화혁명시기를 거치면서 경작지와 대지의 균등 분배가 이루어졌고, 지주층의 축출로 큰집들은 나누어졌으며, 핵가족화로 인해 주택의 규모들도 비슷해졌다.

거들은 당시의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임시적 성격을 띠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별이주촌의 중하층 민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수 조사된 장재촌의 현존 주거의 경우도 해방이전에 건립된 예는 절구가 어느 정도 견고한 소수의 상류층 주거들 뿐이다. 그것들도 해방 이후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많은 개조가 있었다. 특히 살림채를 제외한 부속채들은 대부분 철거되어 배치의 원형을 알아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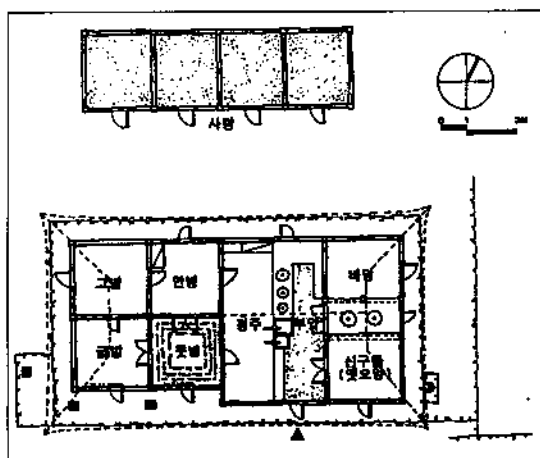


그림 2 벌동촌 박동춘대

延邊 내에서 매우 우수한 기와집으로 알려진 <그림-2>의 벌동촌 박동춘대은 189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전한다.²⁴⁾ 경사지에 석축을 쌓아 넓은 대지를 조성했다. 경사로로 구성된 진입부에는 행랑채와 대문채가 있었던 듯 하며, 24m×22m 크기의 넓은 앞마당에도 여러 가지 부속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에는 초라하고 허름한 '옥시허덕'과 '돼지굴'만이 남아있고, 살림채 뒤편에 4칸 외풍의 '사

랑채'가 남아있다. 기단이 뚜렷하고 전형적인 함북형 평면의 8칸집이다.²⁵⁾ 田자형으로 구성된 방들 앞에는 작은 앞퇴가 있으나 마루는 깔려있지 않다. 부엌 동쪽 칸은 현재 세를 주기 위해 구들을 들이고 있으나, 원래 앞칸은 '오양간(외양간)', 뒤칸은 '바이간(방아간)'이었다고 전한다. 특이한 것은 오양간과 방아간 사이에 있는 반간 규모의 또 다른 방이다. 이 방은 아마 부엌의 살림살이와 식료품을 저장하는 고방이었을 것이다. 다른 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구조이다. 또한 정주칸을 앞뒤로 나누어 뒤를 '조왕간', 앞을 '유간(遊間)'으로 부르고 있다. '조왕간'은 식사를 하는 곳이고 '유간'은 손님접대를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²⁶⁾ 방들의 간살이는 3m정도, 정주칸과 부엌은 2.2m로 차이가 뚜렷하다. 그러나 정주칸과 부엌의 내부는 모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넓게 느껴진다. 특히 정주칸과 부엌 사이의 천장에 보가 생략되어 있어 더욱 넓은 공간감을 이룬다.²⁷⁾ 정주칸 전면에는 작은 살창을 달아 내부가 어둡다. 방들의 전면 창은 살창이며 안쪽에 귀갑문의 덧창이 달려있어 방안은 밝고 고급스럽다. 초석들은 잘 다듬은 사각뿔형태이고, 목재들의 치목과 결구도 견고하다. 나선형으로 조각된 십자형 보아지들이나 심하게 휘어진 추녀의 기교 등, 전체적으로 장식이 과다한 건물이다. 이 집은 규모나 격식으로 보아 당시 연변조선족 주거의 대표형은 아니다. 그러나 19세기말의 주거가 함경북도 주거의 형식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점, 한반도의 상류주거와 구별이 안될 정도로 주거의 입지성과 형태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집에 사용된 치목과 장식기법을 통해, 당시 함경도 지방 상류주거의 장식적 취향을 엿볼 수 있다.

24) 심혜숙, 앞의 책, 32쪽. "1862년부터 3년간 조선 북부에 심한 재해가 들어 두만강을 건너 작은 벌동과 큰벌동에 마을을 개척했다." 이집의 형태와 실제 크기 그대로 통정시내에 있는 조선족민속박물관에 전본 기와집을 세워 공개하고 있다.

25) 양퐁집에서 가운데 정주칸과 부엌은 규모로는 각각 2칸이지만 두공간을 하나로 인식한다. 따라서 4칸을 2칸으로 헤아려 5×2=10칸의 규모지만 '8칸집'이 된다.

26) 벌동촌 박순길씨(54세) 고증.

27) 연변의 일반적인 양퐁집에는 정주칸과 부엌 사이에 '가마봉(대들보)'이 지나가고, 이 보에 천장을 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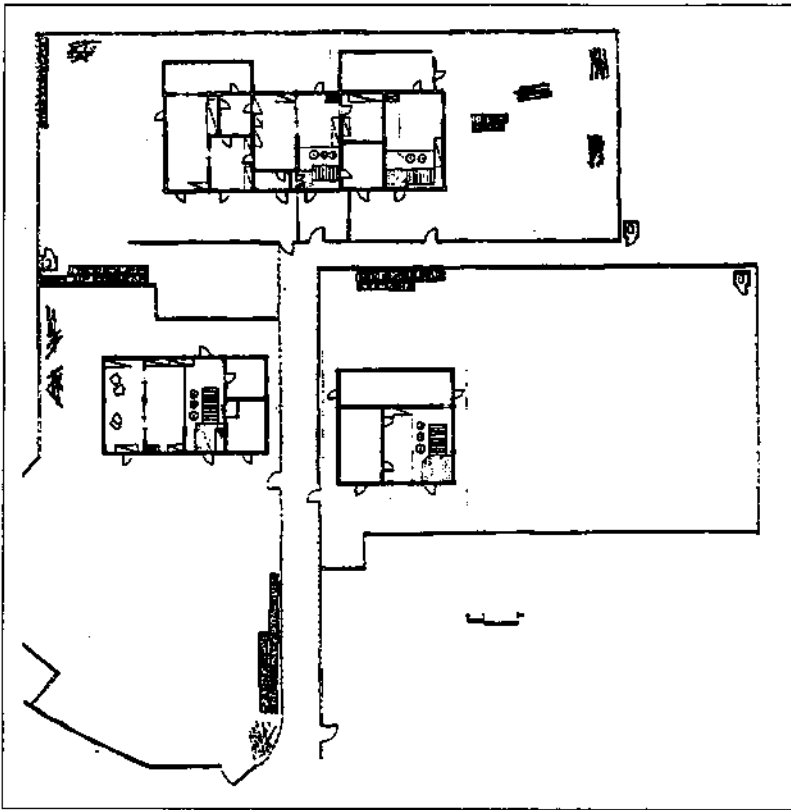


그림 3. 지신향 소재 김성철택

<그림-3> 智新鄕의 김성철가옥을 통하여 당시 상류주거의 배치형식을 추정할 수 있다. 살림채의 내부 평면은 다세대형으로 개조가 되었으며 총 5세대 3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앞의 두 초가집은 원래 하나의 기다란 건물이었으며, 현재도 주민들은 이 집을 '사랑'이라 부른다. 서쪽 초가의 길쪽 측면의 목조가구는 잘려나간 모습이 역력하고, 현재 살림채 진입로 부분이 대문간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고증이다. 종합하면 원래의 배치는 8간 기와 집 본채 앞에 9간의 긴 행랑이 있었고 가운데 1-2간의 대문간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지주층의 큰 집들은 해방이후 작은 집들로 분할되었고, 웬만한 부속채는 없어진 결과이다.²⁸⁾

28) 인근 장재촌에도 지주층의 기와집이 10여호 있었다 전하며, 문화혁명 전까지만 해도 누각형식의 대문채가 있었다고 전한다. (장재촌 허범룡

개별이주촌의 서민층의 주거형식은 <그림-4> 회룡봉촌 전순영가옥의 예를 들 수 있다. 6간집의 몸체에 '닭굴'이 추가된 구성이다. '부수계(부엌)' 동측은 원래 외양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창고용도로 쓰고 있고, 살림채 서측에 '새방채'를 세워 축사로 쓴다. 특징적인 것은 3단으로 두렷이 구성된 기단의 존재이다. 경사지에 입지한 결과로 나타난 형태이며, 개별이주촌의 자유롭고 유기적인 마을과 주거 구성을 암시하는 예이다.

3-2 集團移民村의 마을과 주거

집단이민촌은 삼림으로 둘러 쌓인 미개척지에 택지를 닦고, 1호당 일률적인 택지를 배급하여 대규모 가구가 1-2년 사이에 집을 짓고 정착해야 했다.

충무 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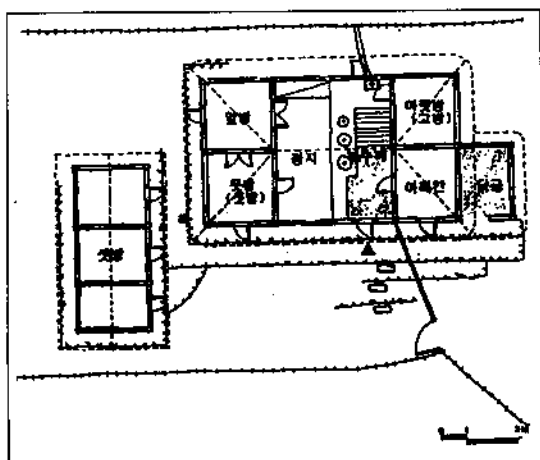


그림 4. 회룡봉촌 전순영댁

일제의 이민계획은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를 건설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으므로 쌀농사에 유리하도록 마을을 평야지대에 입지 시켰다. 마을 내에 격자형의 도로를 내고 100평 정도 규모의 규격적인 택지들로 분할하였다. 따라서 집단이민촌들은 매우 기계적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정착기간이 짧았으므로 주민 간의 빈부 차이가 똑같이 가난할 수 밖에 없었다. 규격적인 택지는 유사한 규모의 주택만을 허용했다.

조사대상 마을 가운데 광수진과 상경촌²⁹⁾은 鎭정부 소재지로 도시적 구성을 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조선족사회가 자족적인 구성을 마친 뒤여서 농업 뿐 아니라 상공업이 발달하여 도시를 형성한 것이다. 두마을은 마을 중심에 넓은 공로가 나 있고, 공로 양옆에는 행정시설, 상업시설, 서비스시설들이 즐지어 있다. 가로 상가 뒤쪽으로는 일반 주거지가 전개된다. 주거지는 규격적인 도로망을 따라 격자형으로 구성되며, 택지가 소규모인 관계로 농촌과는 달리 터밭이 없거나 아주 소규모이다. 농촌주거들은 길과 주택 사이에 넓은 터밭을 두어

29) 上京村이 위치한 黑龍江省 寧安市 渤海鎮은 渤海의 옛수도인 上京龍泉府 터로 발해의 궁궐과 사찰 유적이 현존한다. 발해진의 전체 가구수는 4,300호, 인구 18,700명으로 조선족의 비율은 10% 정도이지만 상경촌은 97%가 조선족이다.

격리하고 있지만, 도시의 주거들은 도로에 면하여 뒤쪽에 터밭을 가꾸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거들은 자재가 부족했고, 시공간은 매우 짧았으며, 숙련된 기술이나 노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거의 질은 형편없었던 것으로 전한다.³⁰⁾ 집단이민촌의 현존 주거들이 대부분 해방이후에 다시 지어진 이유는 원래 주거의 임시성과 낙후성에 기인한다.³¹⁾

집단이민촌 및 도회지의 밀집된 주거들의 택지는 소규모이며 규칙적이다. 집단이민촌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도회지라 하더라도 대다수의 주민은 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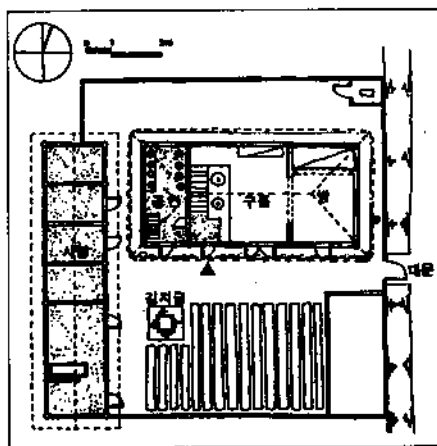


그림 5. 광수진 소재 주복녀댁

30) 조선족 이민들의 주거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일본인 이민의 주거 실태는 보고된 바 있다. (高原一秀 : 『滿洲開拓地の建築』, 『建築雜誌』, 57-699, 1943. 6., 475쪽). 농촌지역 이민주거의 m^2 당 공사비는 35원으로 도시지역 200원의 18%에 불과하고, 조잡한 결과 비위생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를 역설하고 있다. 일본인 이민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그보다 한급 아래인 조선족 이민의 열악한 환경은 가히 상상할 수 있다.

31) 북만촌 이정목씨 (68세)의 고증에 의하면 개척당시에 남조선에서 온 5, 60대 목수들이 주변 산림의 나무를 베어다가 급조해서 지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경상도 이민들이므로 당시에는 경상도형 주거들이었으나, 해방 이후 모두 함경도형으로 다시 지었다.

농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소한 대지에 소규모의 집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도시형 주거의 예는 <그림-5>의 광수진 주복녀가옥이다. 126 m²의 대지에 4간의통으로 구성된 살림채를 앉히고 서측에 7간의 긴 '사랑간'을 배치했다. 창고간을 제외한 살림채 내부는 원래 통간으로 구성된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는 방을 분리하고 수납장을 벽속에 넣었다. 부엌과 '구들(정주간)' 사이에는 역시 가마보가 없고, 부엌의 간살이도 좁아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최소 단위의 주거라 하겠다.

<그림-6>은 농포촌의 최완섭가옥으로 집단이민촌 주거의 예이다. 6간양통의 구성이며, 소외양간 부분은 '공간'으로 개조되었고 외양간은 별도의 건물에 수용했다. 주목할 부분은 '구들(정주간)'과 부엌 사이에 가마보는 물론 기둥도 설치되지 않은 점이다. 명실공히 한간의 통간으로 통합된 사례이며, 珥春 일대의 양통집들은 龍井이나 安園의 집들에 비해 정주간과 부엌의 공간적 구조적 통합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珥春 일대의 이주경로가 龍井 쪽과는 다른 점을 고려한다면, 정주간-부엌의 통합 경향은 인접한 북한지역 주거의 고유한 형식일 가능성도 있다. 이 집의 또 다른 특색은 맞배지붕을 하고 있는 점이다. 조사된 예 가운데 양통집으로 맞배지붕을 한 것은 이집 뿐이다. 지붕의 형태가 건립 당시의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집단이민기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급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4. 解放以後의 마을과 주거

4-1. 社會主義 改造時期의 마을과 주거

일제의 패망과 공산혁명 이후의 역사는 토지개혁과 함께 시작한다. 초기의 토지개혁은 대지주의 사유지와 일제나 만주국이 소유했던 공유지를 소농 이하 계층에게 재분배하는 형식을 거쳤다. 1948년 완료되어 延邊지구 1인당 0.58ha, 1가구당 2.3ha의 토지가 분배되었다. 이 때 鄉 또는 村을 분배단위로 설정해 개혁이 덜 된 지역에 이민이 실시되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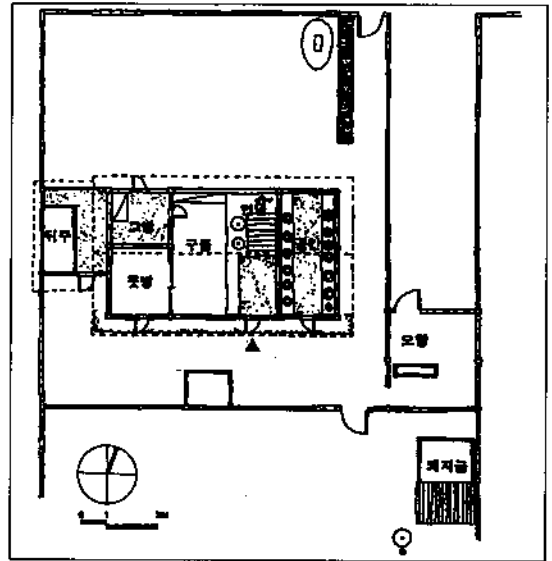


그림 6. 농포촌 최완섭택

데, 47년 돈화현의 경우 계획이민이 4,000호에 달했다.³²⁾ 또 토지 뿐 아니라 가축과 주거의 재분배도 이루어져서, 조선족의 경작수판을 증시하여 3-5호당 소 1마리와 닭구지 1대를 분배했다.³³⁾ 주거의 통제는 없으나, 주민들의 고증을 통하면 이 때 대지주의 주거가 3-5호로 분할되고 개조된 사례가 많다고 한다. 또 중농의 주거들도 대지를 축소하여 평균적인 규모가 되도록 제조정되었다. 토지개혁 이후에는 공동경작 방식인 호조합작을 유도하여 49년 총농가 수의 34.7%가 호조조에 참여했으며, 농업생산합작사들을 시험 운영하면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추진하였다.³⁴⁾ 이 시기에는 비록 집체경영을 근간으로 했으나, 생산수단과 주거의 사유제는 인정되었다. 따라서 농촌의 경우 주택의 개별적 건설이 활발한 시기였다.

<그림-7>의 신동촌 리민송가옥은 해방직후 건립된 중농계층의 주거이다. 8간양통의 구조로, 아직 가축의 사유가 인정되었던 관계로 외양간과 방아간이 (현재는 거위 축사로 개조) 설치된 전형적인 구성이다. 기둥의 간살이는 전형적이지만, 한웃방을

32) 金奎方 외, 앞의 책, 98-112쪽.

33) 같은 책, 1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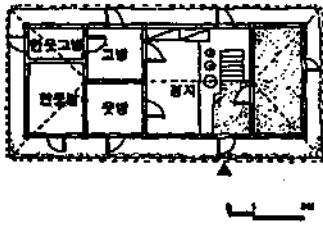


그림 7. 신동촌 리만송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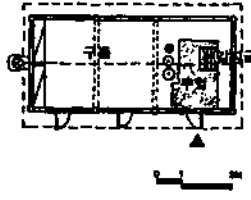


그림 8. 남도촌 김덕수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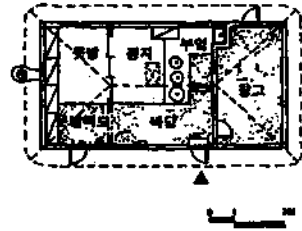


그림 9. 상경촌 한두현덕

넓히고 한옥고방을 줄여 기능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전면의 기단은 3벌대의 석축으로 가지런하게 정비되어 있다. 해방전의 주거와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림-8>의 남도촌 김덕수가옥은 50년대 중반에 건립된 3칸외통 구성이며 맞걸이3량구조로 조사된 예 가운데 가장 간단한 최소 주거이다. 사회주의 개조단계에서 마을간의 집단적 혹은 개인적 이동이 빈번했으며, 이전의 반농들도 토지와 주거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간단한 주택이 건설되었을 것이다. 내부는 완전히 통간으로 되었고, 외양간이나 창고시설이 없다. 이미 집체경영과 생산수단의 공유화 단계로 접어들었던 물리적 흔적으로 생각된다. 부엌이 유일한 실내의 작업공간이므로 간살이가 크고 바당이 넓다. 바당 한쪽에 감자굴을 두어 유일한 수장공간이 된다. 방과 정주간의 구별없이 2칸의 '구들'이 개방되어 있다. 맞배초가 지붕이어서 외관으로는 한족주거와 구별이 쉽지 않다.

<그림-9>의 黑龍江省 上京村 한두현가옥은 56년에 신축되었다. 원래는 함북형의 주거였으나, 지금은 실내 전면에 바당을 두고 '옷방'과 '정지(정주간)'는 한족의 '강'과 같이 되었다.³⁴⁾ 도시적 환경이기

때문에 집 뒤는 도로에 바짝 붙어있고, 앞은 작은 터밭과 돼지우리가 부설되었다. 벽체는 기둥이 감추어진 두꺼운 흙벽으로 추운 기후에 대응하고 있다. 시대적 특징보다는 지역적 성격이 돋보이는 예이다.

4-2 集體化時期的 새마을과 주거

1958년부터는 소위 '大躍進과 國民經濟調節時期'로 진입한다. 大躍進運動은 일약 선진국으로의 도약목표로 경제정책을 시행했으나 무리한 생산목표와 노동의욕의 상실로 인해 생산력은 오히려 급격히 떨어진 실패작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⁶⁾ 이시기의 농촌공동체는 인민공사로 특징 지워진다. 인민공사는 합작사의 집단적 소유관계를 전인민적 소유관계로 전환한 생산단위로 "크고도 공적인" 동성인 민공사의 경우 3,458호 18,042명이 하나의 단위에 소속이 되는 거대한 조직이었다.³⁷⁾ 이 시기는 국가의 모든 경제력을 생산부문에 투자했기 때문에 주택의 건설은 그다지 활기를 띠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된 예 가운데서도 이시기의 주거는 상경촌 리춘길가옥(1960) 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집은 후통강성 한족주거의 영향이 짙은 소위 '折衷式' 주거여서 시기적 성격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1966년에 시작한 文化大革命의 평가는 여러 가지

34) 같은 책, 124-149쪽. '호조조'는 생산수단과 기술은 개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협업농의 개념을 가졌고, 한단계 더 공산화된 '생산합작사'는 토지의 통일적 집체경영을 피한 형태이다. 56년경에 시행된 '고급합작사'는 토지와 주요한 생산수단은 집체적 소유로 전환되어 주택과 생활용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재산은 사실상 공유화되어 이후의 인민공사의 물적 토대가 되었다.

35) 上京村이 속한 黑龍江省 渤海鎮은 漢族이 주류를 이루는 '雜居地域'이며, 연변과는 달리 漢族化의 경향이 뚜렷하다.

36) 金奎方, 앞의 책, 202-208쪽.

37) 같은 책, 208쪽.

이다. 현재 공식적인 延邊學界는 이시기를 “10년동란기”로 규정하여 퇴행과 암흑의 극좌적 모험주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공사를 명목적으로 확대하고 농촌공동체 조직을 군대식으로 재편하여 미개척지에 대한 집단이주가 시행되어 많은 ‘새마을’들이 만들어졌다. 집체화시기 중에 발생한 새마을들 역시 동일한 규모와 형태의 택지로 분배되었기 때문에 집단이민촌과 유사한 구성을 한다. 단지 집단이민촌은 일제의 수탈 목적과 항일유격대에 대한 치안 유지의 목적으로 소규모 택지들을 밀집시켰던 데 비하여, 새마을들은 비교적 여유 있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여 건물들의 밀집도는 그다지 높지 않게 인식된다.

이시기의 농업정책은 “알곡은 사회주의이고 축산은 자본주의다”라고 하여 식량생산만을 강조하고 가축 사육은 물론 텃밭 경작까지도 금지시켰다.³⁸⁾ 또 “조선어 부용론” “민속 타파”를 기치로 상여 족보 계 등 조선족 고유문화가 파괴되고 농촌의 협동조직이나 공동행사가 소멸되었다.³⁹⁾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주거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축산의 금지로 외양간 등 사육공간이 사라졌으며, 공동생산 공동소유로 개별적인 저장 공간도 없어졌다. 확대가족이 핵가족으로 이행함에 따라 8간집 등 큰규모의 주택은 쓸모 없게 되어 소규모의 주택들이 선호되었다. 심지어 가족제도의 타파라는 극단적 실험이 등장하여 각 마을에는 지식인들의 ‘下放’과 공동생활을 위한 ‘集體戶’가⁴⁰⁾ 등장하였다.

<그림-10>의 송화촌 박성민가옥은 문혁기 집단 개척주거의 예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인근 송강진에서 농사짓기에 편리하도록 68년에 집단이주하였다. 30호규모로 인민공사의 1개 小組을 이루었다. 마을은 가운데 주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규격적인 택지를 배열하였고, 모두 3칸의봉의 살림채와 서쪽에 부속채를 갖는 획일적인 주거로 구성되었다. 박성민가옥은 최근에 서쪽1칸을 늘려 ‘재산이(거위)우리’로 사용하고 있다. 마당에는 ‘육시다락’과 ‘장작간’ ‘돼지울’ 그리고 서쪽에 4칸의 헛간채물⁴¹⁾ 부설하였는 바, 모두 개방개혁 이후의 것들이다. 마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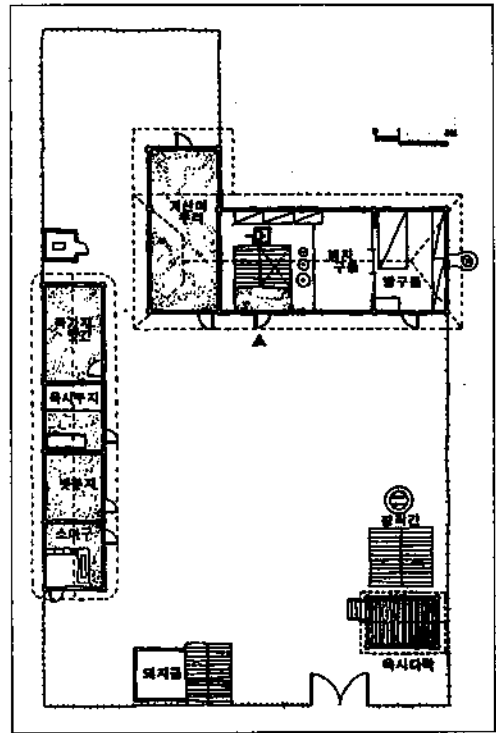


그림 10. 송화촌 박성민대

비워져 텃밭이 없으며, 살림채 앞에는 일질 사육공간도 수장공간도 없다. 모든 재산의 인민화, 축산의 금지, 평등한 삶의 조건 등 문화혁명의 모든 목표가 물리적인 흔적을 남기고 있는 예다.

<그림-11> 남도촌 한길용가옥은 ‘集體戶’로 사용

39) 한상복 외, 앞의 책, 150쪽.

40) 도시의 대다수 지식층과 고중, 대학생들은 ‘下放’의 열풍에 빠져 아무 연고없는 농촌의 ‘集體戶’에서 생활하며 노동을 하게된다. 대개 ‘集體戶’는 마을 입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벽돌집으로 세워졌고, 주민들과의 접촉이나 가족관계 형성이 금지된 채 공동생활을 하였다. 集體戶 운영은 문혁이 끝나는 76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내부를 개조하여 일반가구가 입주하거나 상점 등 공공시설로 쓰이고 있다.

41) 이 지방 (안도현)의 조선족 주거는 전통적으로 본채 뒤안에 ‘사랑(헛간)’과 ‘육시다락’ 등을 부설하였다. 송화촌의 경우 부속시설들은 최근의 것들로 마당 전면에 부설된다.

38) 같은 책, 2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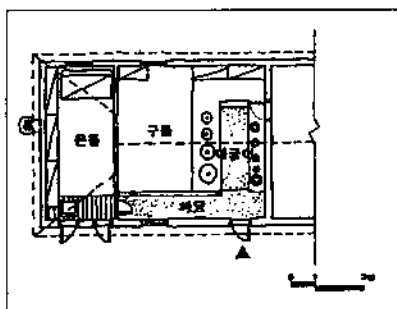


그림 11. 남도촌 한길용택

되던 건물을 78년에 현재와 같이 개조한 것이다. 하나의 건물을 2세대가 분할하여 내부에 구들을 들이고 살림을 차렸다. 집체호는 한족의 침대생활을 위주로 건립되었으므로 조선족 주거의 특징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벽돌로 기다란 외통건물을 짓고 개랑기와를 올렸으며, 내부에는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고 부분적인 '칸'을 두거나 침대를 두어 최소 생활만을 가능케 했다. 한길용가옥은 '온돌(방)'과 '구들(정주간)'을 두어 '조선식' 주거로 개조했으나, 전면에 긴 바당을 두어 '중국식' 요소도 절충하였다.

4-3. 現代化時期의 주거

四人幫 몰락으로 76년에 文化革命은 막을 내리고 조심스러운 開放改革의 경제정책이 시행된다. 시장 경제의 도입, 부분적 개체사업 허용, 축산업의 부활 등을 통해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게 된다.⁴²⁾ 농촌주거들도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는 바, 개체경영과 수입의 사유화를 보장하는 '호도거리'의 전반적 시행으로 주거 내에 작업과 수장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축산의 부활로 외양간 축사 등이 다시 설치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잉여경제력의 축적과 현대화 바람으로 인해 전통적인 조선족 주거형식이 근본적으로 '개량'되기 시작한 점이다. 또한 수입증대를 위한 농기계 도입으로 농가의 외부공간이 기계 운용에 맞도록 변화하고 있다. 반면 인민공사 시절 집단화에 대한 역작용으로 공동체의 협동과 안정성이 와해되고 이농화 경향이 나타나기

42) 金奎萬, 앞의 책, 271-283쪽.

도 한다.⁴³⁾

70년대 이후 개체경영의 일환인 호도거리 농사로 공동작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문화혁명 시기에 전통적인 협업 체제가 붕괴했기 때문에 마을의 공동행사나 작업을 위한 공용시설은 매우 적다. 그러나 교육시설만은 완비되어 80호 정도의 마을에는 小學校가 하나씩 있고, 上京村에는 민족 소학교는 물론 민족 초등학교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 외의 공용시설은 유치원과 청년모임을 겸한 文化室이 있고, 新東村에는 무의탁 노인들의 敬老院과 후자가 운영된다. 일용품은 마을에 있는 상점에서 구입하는바, 과거에는 半國營의 合作社가 있었으나 현재 個體商들인 小賣店이 마을마다 1-3개씩 영업하고 있다. 도회지인 凉水鎮에는 10개소의 상점, 농산물시장, 牛市場 등의 상업시설과 극장, 舞蹈廳, 가라오케 등의 오락시설도 경영된다. 농촌의 경우 별도의 마을내 위락시설은 없다. 단지 마을의 공터나 청년구락부 등에서 일년에 10여차례 순회 상영하는 영화가 유일한 위락행사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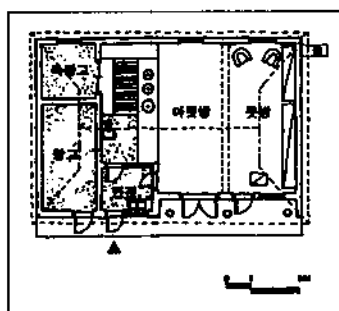


그림 12. 홍기촌 현명선택

<그림-12> 紅旗村의 현명선가옥은 85년에 신축된 '벽돌집'이다.⁴⁴⁾ 현명선가옥은 대지 500 m², 건

43) 한상부 외, 앞의 책, 150쪽.

44) 紅旗村은 53년부터 정부 이주정책에 따라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80년대에 거의 모든 가옥이 재건축되어 '벽돌집'으로 바뀌었고, 公路가에는 현대식 식당과 숙박시설, 상가가 들어선 '새마을'이다. 마을 정비와 주택개량의 성과로 안도현 정부의 표창을 받은 '자랑스러운' 마을이다.

평 76 m²로 담장 안의 남쪽은 터밭, 북서쪽에 '돼지 울'과 '마구채'가 있다. 벽체는 블럭조적 위에 몰탈로 마감했고, 붉은 평기와를 얹은 팔작지붕의 '벽돌 집'이다. 내부 평면은 6간양통의 조선식을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아랫방(정주간)'과 '옷방' 사이에는 문턱만 있고 개방되었으며, 방 앞에는 퇴를 달고 등근기등을 세웠다. 부엌 앞에 별도의 현관을 만들어 현대화의 조짐을 보이지만, 실제 출입은 옷방 문을 통해서 때문에 현관은 실적이 용도의 부업으로 쓰일 뿐이다. 외양간은 애초부터 별도의 '마구채'로 세워졌으며, 집 내부에는 생활용품과 음식저장을 위한 2개의 창고가 크기를 달리하여 부설되었다. 전통적 조선집형식을 바탕으로 편리를 위해 개조한 형식이다. 구조는 바뀌었지만, 지붕에 서까래를 달아 겹쳐마를 흉내내어 조선집을 표방하고 있고, 기둥과 상부에 원색 페인트를 칠해 장식효과를 꾀하고 있다.

5. 住居의 類型과 變化

5-1. 양통집과 외통집

조사된 대상 가운데 전통적 '조선식'인 경우, 양통집과 외통집이 고루 분포한다.⁴⁵⁾ 양통집이란 "한용마루 아래에 각 방들이 겹으로 배열되어 있는 집"⁴⁶⁾ 또는 "각 방들이 겹으로 배치되어 있는 살림집"⁴⁷⁾으로 정의한다. 물론 연변조선족의 양통집이

란 정주간이 있는 형식들이다. 그렇다면 외통집은 홑집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은 '양통집'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집이란 당연히 양통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류에 따르면, 양통인 '6간집' - '8간집' - '10간 기와집'과 '외통집'이 있을 뿐이다.

6간, 8간, 10간 등 양통집의 간을 세아리는 데는 정주간과 부엌의 구성을 이해해야 한다. 원형적 형식으로 보이는 초기의 6간 8간집을 보면 부엌과 정주간 사이에는 일절의 외벽기둥없이 완전한 한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3>의 예⁴⁸⁾ 또한 두 공간 사이를 가로지르는 가마보가 나타나지 않아 비록 간살이는 넓지만 앞열과 뒷열로만 구분될 뿐 하나의 구조와 공간으로 구성되어 외관상으로는 구조상으로는 완전한 앞뒤 2칸의 공간이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긴칸을 구성해야하는 구조적 불리함과 내부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정주간과 부엌 사이에 기둥을 세운 집들이 출현했다. <그림-5>와 같이 량수진의 주거들은 외벽 기둥을 세우면서도 간살이를 매우 좁게하고 가마보를 지르지 않아, 구조적으로는 비록 4칸이지만 개념적으로는 2칸의 공간을 유지한다. 그 이후 다른 지역의 예와 같이 두 공간의 간살이가 더욱 커지고 내부에 가마보를 걸치는 등 외관적, 구조적으로 뚜렷한 별개의 공간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집들에서도 엄연한 4칸의 공간을 2칸으로 부르는 원형적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연변형 양통집의 특성이 정착된 것이다.

<그림-13> 량수진 송록송가옥은 '6간집'이다. 가운데 통간인 정주간과 부엌 좌우에 1쌍의 방과 헛간이 있다. 이 집에는 정주간과 부엌 사이에 가운

45) 흔히 함경도 주거의 전형은 정주간이 있는 8간 양통집으로 소개되어 왔다. 정보원인 북한학계의 자료가 이들 형식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시기에 행한 신무성의 보고에 의하면 빈농층의 주거는 외통집이며, 양통과 외통, 다양한 규모의 주거들이 고루 분포함을 알 수 있다. (橫山武嶋, 「北鮮地方の住宅について」, 『朝鮮と建築』, 19-12, 1940.) 연변지역 역시 양통과 외통이 섞여 분포하며, 양통집은 국경 부근의 개별아주촌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외통집은 집단이민촌이나 도시형 주거지에 많이 분포한다.

46) 박경휘, 앞의 책, 14쪽. 리종복, 앞의 책,

47) 리화선 : 「조선건축사」, (I),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평양, 1989, 358쪽.

48) 본 연구의 <그림-6> 농포촌 최완섭주택 참조. 다른 예로는 영남대 김일진교수 팀의 조사도면 참조. (김일진 : 「삼합집 북흥1대의 초가집」, 『청구』 사보, 1994, 1-2월호, 9쪽. 김일진 : 「도문시백통촌 초가집」, 『청구』 사보, 1994, 3-4월호, 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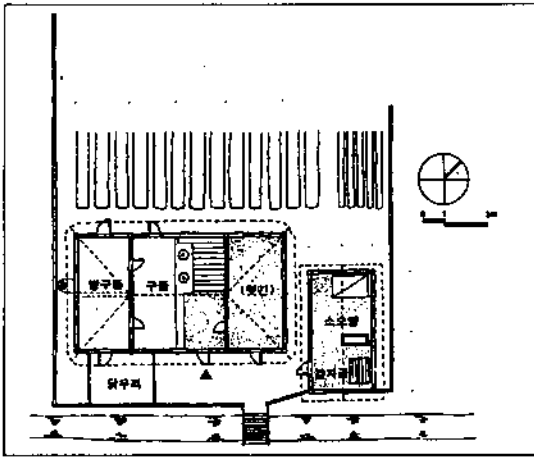


그림 13. 람수진 소재 송록송덕

데 기둥이 없을 뿐더러, 상부에 가마보(대들보)도 걸리지 않는다. 6칸집 각방의 이름과 이용은 <그림-14>와 같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조사된 6칸집 예들의 년대가 그다지 깊지 않으므로 부엌 옆칸에 외양간이나 방아간은 나타나지 않고 창고용도로 사용한다. 반대편 한쌍의 방은 뒤가 안방-고방으로, 앞이 옷방-셋방으로 지칭된다.

① 구들 ② 고방 ③ 앞방	① 정주간 ② 구들 ③ 정지	○ ○ ○ (부엌)	① 고방 ② 공간 ③ 고방
① 구들 ② 옷방 ③ 옷방 (셋방)			① 창고 ② 공간 ③ 아랫칸

<①태양촌 리만길 ②농포촌 최완섭 ③희룡봉촌 전순영>

그림 14. 6칸집 방이름

<그림-15>의 벌등촌 박남선가옥은 72년에 신축했지만 전형적인 8칸집의 구성을 보여준다.⁴⁹⁾ 정주

49) 이 마을과 주거의 보수성은 지리적 역사적 환경 속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典型에서는 부

간과 부엌 사이에는 역시 가마보가 생략되어 있다. 8칸집의 특징적인 부분은 田자형으로 구성된 4개의 방이다. 방과 방 사이에 문을 달아 서로 통하도록 되며, 예전에는 뒤쪽열 2방은 여자들이, 앞쪽 2칸은 남자들이 사용했다. 현재의 핵가족에서는 식구 모두 정주간의 구들 위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田자형 4칸방들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대로의 추세라면 곧 사라질 유형의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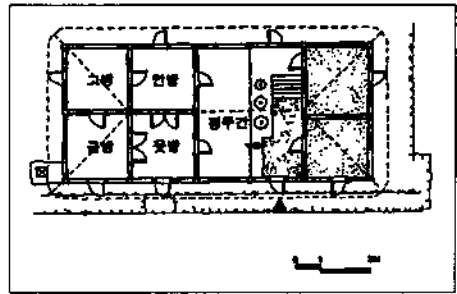


그림 15. 벌등촌 박남선덕

<그림-16>과 같이 4개방의 명칭은 매우 다양한 쌍으로 불려진다. 뒷열에 여성들이 거주할 경우 정주칸 쪽을 안방, 바깥쪽을 고방으로, 앞열 남성들은 아랫방 혹은 손님방으로 지칭한다. 이것이 예전의 용례인 듯하다. 현재 많은 집들은 가족수의 감소로 인해 뒷열을 모두 고방으로 쓰며 앞열에만 거주한다. 이 때 앞열의 정주칸 쪽은 '방' 또는 '아랫방', 바깥 쪽은 '한옷방' '마듯방'⁵⁰⁾ 또는 '옷방'이 된다. 뒷열 고방들은 앞의 명칭을 따라 '고방-아랫고방' 또는 '한옷고방-고방'으로 불린다. 부엌 옆칸들은 외양간의 위치가 앞 또는 뒤로 일정치는 않다. 원래는 앞열에 외양간, 뒷열에 방아간을 두었으나, 일

엿열에 방아간과 외양간을 두지만, 문화혁명기에는 축산을 위시한 모든 사적 생산이 금지되어 외양간과 방아간은 필요없는 공간이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8칸집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두칸은 창고로 사용한다. 내부에서는 다른 지역과 같이 부엌바닥 위에 마루판을 깔았던 것이 유일한 변화인데, 이것마저도 불편하다고 제거한 상태이다.

① 고방	① 아랫		① 두지
② 고방	고방		② 오양
③ 고방	② 안방		③ 바당
④ 한웃	③ 안방		④ 바이칸
고방	④ 고방		⑤ 외양간
⑤ 고방	⑤ 고방		
① 웃방	① 아랫방	(부엌)	① 우사
② 고방	② 손님방		② 집새칸
③ 굴방	③ 웃방		③ 오양
④ 한웃방	④ 방		④ 석오양
⑤ 웃방	⑤ 아랫방		⑤ 창고

< ① 명동촌 송이바아 ② 백초구진 기와집 ③ 발동촌 큰기와집 ④ 정재촌 립선생 ⑤ 해란촌 J서 >

그림 16. 8간집 방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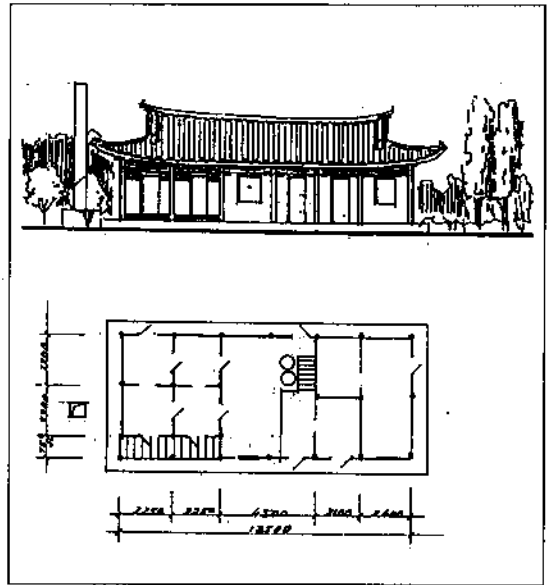


그림 17. 복흥촌 기와집

재기 위생상 나쁘다는 이유로 외양간을 분리할 것을 강요받아 방아간과 외양간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 한다.⁵¹⁾ 앞이 외양간이면 뒤는 방아간이 되지만, 현재는 위생적 이유로 외양간은 별도의 부속채를 구성하며 대부분 창고로 사용한다.

'10간기와집'의 예는 매우 희귀하다. <그림-17>의 복흥촌 기와집이 유일하게 조사된 예다.⁵²⁾ 평면도만 살펴본다면 8간집에 수납 혹은 작업용의 2칸이 더 붙은 형식이다. 현지 목수들의 개념 속에는 '10간 기와집'이란 최고의 주거 형식으로 자리잡고 있다.⁵³⁾

<그림-18>은 외통집의 예다. 4칸 외통집으로 맞걸이 3량 맞배지붕의 간략한 구조다. 기단이 없고 바당면은 지표보다 낮고 온돌면이 지표와 일치하는 매우 낮은 집이다. 벽도 두꺼워 보온효과를 위한 의도가 아닐까 추측된다. 부재들은 매우 가늘고 거칠다. 창고-부엌-온돌의 간단한 구성이며, 정주칸과 방과의 구별이 모호하다. 그러나 소규모 외통집에도 부엌-정주칸의 구성은 변함없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좁은 내부공간의 필요 때문에 정주칸을 독립된 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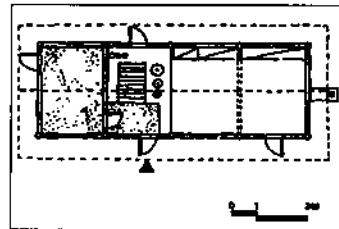


그림 18. 신동촌 리중석댁

방'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50) 김일진교수가 조사한 백룡촌 초가집의 예. '마뚝방'이란 '말웃방'을 의미하며 '한웃방'과 유사하다.

51) 김일진 : 「도문시 백룡촌 초가집」, 『청구』 사보, 1994. 3-4, 14쪽.

52) 이 집은 연변대학 김광택교수가 조사하여 도면 작성한 관계로 각방의 이용도나 정확한 구조를 모른다.

53) 통정시 리某(62세) 목수 면담 결과.

① 방구들	① 정지구들	○	③ 쌀칸/ 공간
② 방	② 구들	○	④ 독창고/ 곡식창고
③ 구들	③ 구들		
④ 옷방	④ 아랫방	(부엌)	

<① 송화촌 박성민 ② 남도촌 박인선 ③ 상경촌 리춘길 ④ 흥기촌 현명선>

그림 19. 의룡집의 방이름

5-2. 漢族 住居要所와의 折衷

延邊 조선족의 주거는 문화권 형식에 따라 '조선식'과 '절충식'으로 나눌 수 있다.⁵⁴⁾ '조선식' 주거란 한반도의 주거형을 延邊에 이식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다. 延邊의 조선식이란 함경도 주거형을 지칭하지만 해방 전의 이민들은 함경도에서만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집단이민들은 남부의 경상도와 전라도민들이 주류를 이루었다.⁵⁵⁾ 전라 경상도민들이 집단이주했을 당시에는 자기 고향의 주거형을 지었다한다. 전라도 이민인 安圖縣 南道村의 경우 70년대까지도 전라도식 주거들이 존재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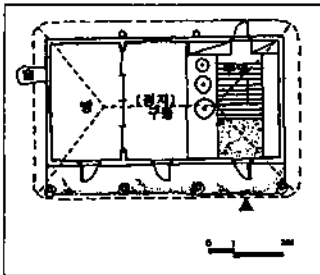


그림 20. 남도촌 박인선택 (현재)

다. <그림-20>의 박인선택은 67년에 신축할 당시 <그림-21>과 같이 부엌과 방 사이에 벽이 막히고 방들은 앞의 퇴마루를 통해 출입했었다. 마을에서는 이 집을 '조선집'으로 불렀다. 전라도 이민들에게 '조선집'이란 전라도식의 주거를 의미했기 때문이다.⁵⁶⁾ 이 집은 83년에 현재와 같이 정주간이 있

는 함경도집으로 개조되었다. 개조한 이유는 뚜렷치 않으나 거주인의 말로는 추운 기후 때문이라 한다. 또한 개방형 내부공간이 가구물 수용하기에 유리한 점도 있었다. 이 집은 또한 보기 드문 귀틀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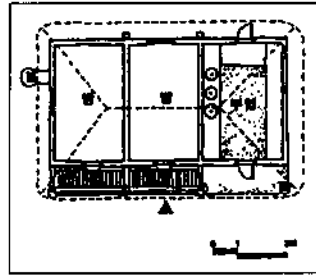


그림 21. 남도촌 박인선택 추정 복원도

다시 말하면 정착 초기에는 한반도 각지의 주거형식들이 이입되었으나,⁵⁷⁾ 사회주의 개조단계를 거치면서 주거문화의 집단화, 획일화 현상이 일어나 함경도형 주거로 개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주

55) 조선 남부를 대상으로 집단이민정책을 편 이유는 함경도민 가운데 이주 희망자들은 이미 개별적으로 연변에 정착한 상태였고, 경상 전라도민들은 일본에 이주하여 일본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56) 김일전교수의 조사에도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전: 「태양촌의 초가집」, 「청구」, 사보, 1994. 5-6, 8-14쪽.) 경북 상주출신 이민의 주거 한예는 원래 경북북부형의 양통집으로 정주간이 없었으나, 해방이후에 개조하여 함북형이 되었다한다. 유사한 현상은 흑룡강성 상경촌에서도 나타난다. 상경촌의 한두현씨 (74세) 고증에 의하면, 자신이 이주할 당시인 44년에는 이마을 주거는 모두 정통 함경도식 '은돌'이었으나 50년대 중반부터한족식의 '바당'으로 개조했다. 아직도 함경도식 주거형을 '조선집'이라 부른다.

57) 이 사실은 현지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박경휘, 앞의 책, 11쪽).

54) 박경휘, 앞의 책, 49-53쪽.

초기부터 조선족이 고유한 주거형식을 고집한 것은 특기할 사실이다. 일본인 이민집단은 만주식 가옥에 입주하여 위생상 관습상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⁵⁸⁾ 반면 조선족 이민들은 고유한 주거형식을 유지한 채 적응을 시작하여 내부적 변화를 거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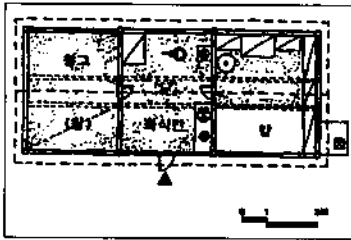


그림 22. 갑산촌 葛山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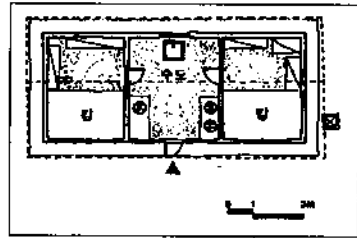


그림 23. 광신촌 壯寧國

은 조선식 양통집과 중국식 평면이 결합된 예다. 6칸규모의 내부를 앞뒤로 구획하여 앞에는 바당을 뒤에는 정주칸과 같은 구들을 놓았다. 이 구들 자체는 정주칸을 연상케하지만 앞의 바당과 결합하면 중국식 '강'이 되고 만다. 원래 외양간에 해당할 공간은 현관의 기능으로 바뀌었다. 문화접변과 현대적 기능이 복합된 공간이용이다.

서 하나의 유형을 정착시킨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중국식'이란 중국 동북지방 - 黑龍江省, 遼寧省, 延邊 이외의 吉林省 - 漢族들의 민가형식을 말한다.⁵⁹⁾ <그림-22>은 농촌 한족집이며 <그림-23>은 도시의 한족집이다. 葛山村가옥의 왼쪽 칸은 원래 오른쪽 칸과 같이 '강(抗)'이 놓여, 대칭적인 두 방 사이 가운데 '화식칸'이 놓이는 전형이었다. 벽체는 심벽의 내력벽이며 기둥은 문을 달기 위한 부재일 뿐이다. 지붕은 경사가 급한 맞배지붕으로 처마가 돌출되지 않는다. 壯寧國가옥은 평면적으로는 전형적인 '중국식'이다. 앞의 집에 비해 창을 개조하여 내부가 밝고 위생적이다. 조선식과 가장 큰 차이는 정주칸이 없고, 방의 반 이상이 바당이라는 점이다. 후통강과 료녕성의 조선족은 이미 이런 중국식 주거에 습관화되어 외관은 조선식이지만 내부 공간구성은 모두 이런 구조양식을 취한다고 한다.⁶⁰⁾

중국적 요소를 수용한 절충형은 하나의 형식으로 고착되지 않는다. <그림-24>의 상경촌 리춘길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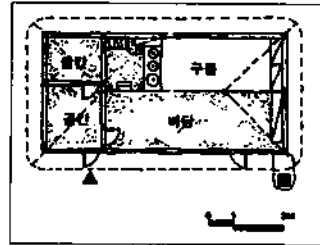


그림 24. 상경촌 리춘길

<그림-25>의 紅旗村 최명활가옥은 또 다른 折衷式이다. 가운데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방들을 배열한 것은 마치 漢族의 '3통집'을 연상케 한다. 또 부엌과 온돌 사이에 벽을 친 것은 중국식 화식칸과 방과의 판계를 구성한다. 그러나 부엌과 온돌 사이를 막았지만 벽 전체에 유리를 달아 정주칸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87년 신축된 주거로 규범 보다는 생활 상의 편리에 의해 구상된 집으로 조선식 중국식 할 것 없이 필요한 요소를 적절히 수용한 예이다.

58) 高原一秀, 앞 논문, 477쪽. 일본식 주거에는 마땅한 난방설비가 없어 기후에 적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식 패치카를 사용하기도 했고, 중국식 짚이나 조선식 온돌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모두 적합치 못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59) 박경휘, 앞의 책, 51쪽.

60) 같은 책, 5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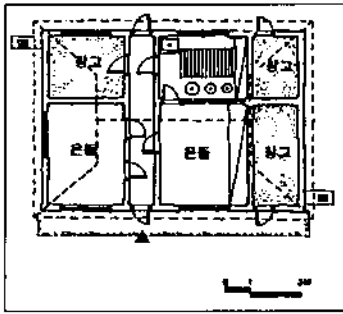


그림 25. 흥기촌 최명활덕

5-3. 都市化, 現代化의 傾向

자료조사의 대상을 농촌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도시주거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鎭이나 鄕소체지의 주거들은 도시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림-26, 27>은 조사대상 가운데 도시적 맥락에서 구성된 예들이다. 80년대까지 중국의 주택 건설 실적은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져왔다. 특히 도시지역의 주택정책이란 기존의 주택을 개조하여 한집에 여러 세대를 수용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조사된 예에서도 다세대화 현상은 빈번히

나타난다.

<그림-26> 智新鄕의 초중학교사택은 7자 집을 2칸부터 6칸의 규모로 4가구가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7자집은 농촌지역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4세대 모두 정주공간이 설치되며 각 세대별로 별도의 마당과 대문을 가지고 있다. 내부 생활에는 입식화 경향이 나타나 부분적으로 침대를 이용하는 면도 보인다. 같은 智新鄕의 리회정가옥 <그림-27>은 해방전의 지주집을 2세대가 사용하는 경우다. 예의 정주공간이 설치되었지만 각 방들 사이에는 벽이 쳐져 독립성이 보장된다. 다세대화 경향은 농촌에서도 빈번하다. 복만촌의 김길영가옥은 원래 6칸집을 두세대용으로 무리하게 개조했다. 실내 입구의 바닥에 마루를 깔아 바닥이 없어지고 부엌과 정주간의 관계가 변형되었다.

도시형 주거의 또 다른 특징은 대지가 협소하고 살림채가 길에 밀접히 면한다는 점이다. <그림-13> 량수진의 송륙송가옥은 도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길에서 좁은 도랑을 건너면 바로 주거의 정면을 대하게 되며, 좁은 안마당에 접한다. 취사 세탁 등이 길가에서 이루어지며, 터밭은 집 뒤에 가꾸어져 길에서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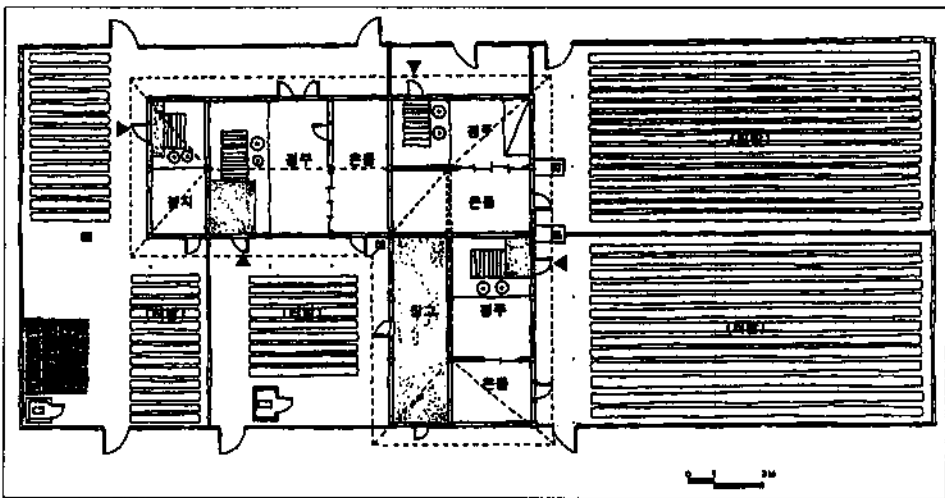


그림 26. 지신향 소재지 초중학교 사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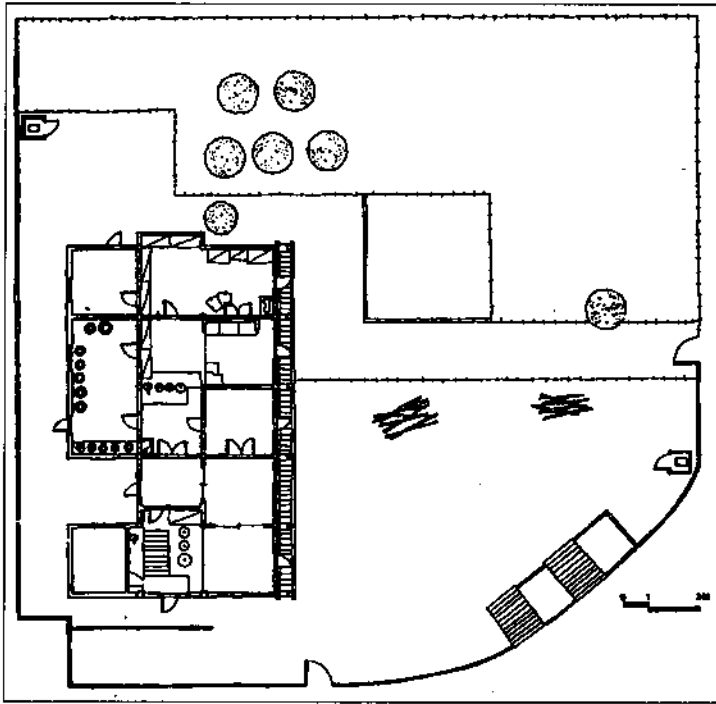


그림 27. 지신항 소재지 리회정대

<그림-28>은 새롭게 설계된 연길시내 조선족 아파트의 평면도이다.⁶¹⁾ 평면계획은 남한의 아파트와 유사하게 거실중심의 입식생활을 위한 구성이다. 이 집은 최신의 설계로 패열을 이용한 중앙난방을 하고 있다. 이보다 조금 오래된 집합주택들은 연탄 아궁이가 있는 개별난방용으로 중국식 복도형 평면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조선족들이 입주하면, 아궁이와 온돌을 개조해 정주간과 같은 공간을 만든다고 한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연변에서는 조선족 주거의 현대화 혹은 개량에 많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신축되는 집들은 이미 전통적 형식과는 구별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현지의 연구는 농촌민가의 변화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꼽는다.⁶²⁾

- 1) 정지(부엌)와 거주실(정주간) 사이가 유리문 또는 간벽으로 차단된다.⁶³⁾
- 2) 내부 보온과 신발 정리를 위해 4㎡ 정도의

현관이 마련된다.

- 3) 히터를 집안에 설치한다.
- 4) 층고가 2.2m 정도에서 2.6-2.8m로 높아졌다.

이상의 지적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더욱 큰 변화는 건축재료가 바뀌었고 따라서 구조방식과 평면구성이 변화된 점이다. 신축되는 집들은 대부분 벽돌이나 블록으로 벽을 쌓고 평기와지붕을 얹는다. 전통적인 목조초가집을 이른바 '벽돌집'으로 개량하는 것이 주택 현대화의 전형으로 인식된다.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것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정주간의 요소이다. 정주간은 불변의 요소일 뿐 아니라, 앞의 몇 예에서 지적했듯이, 경상도형 혹은 전라도형의 주거들도 정주간을

61) 자료제공 : 연변대학 설계원 리백수원장.

62) 김광택, 연변조선족 민가, 『조선족민속연구』 제1권, 1991, 57쪽.

63) 정주간과 부엌의 분리현상은 1940년 함북지방을 조사한 신무성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신무성, 앞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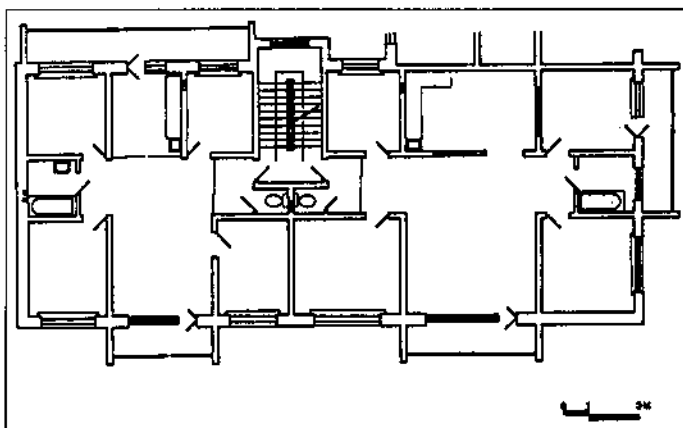


그림 28. 延吉 시내 신축 아파트 평면도 (일부)

도입하기 위해 개조될 정도이다. 또 도시의 조선족 연립주택이 중국식으로 설계되었지만 많은 집에서 정주간을 도입하기 위해 개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현대적 변화의 경향을 몇가지 더 지적하자면,

- 1) 건축재료가 벽체는 블록 또는 벽돌조로, 지붕은 평기와 또는 슬레이트로 바뀌고 있다.
- 2) 외양간은 살림채와는 별도의 부속시설로 경영된다.
- 3) 주택 내부 부엌에 수도 혹은 펌프가 가설된다.
- 4) 폐쇄된 방의 수가 줄어들고, 주거내부가 통간화되고 있다.
- 5) 중국식의 요소도 쓸모가 있으면 과감히 채용한다.

주택 현대화 방향에 대해 박경휘는 더욱 적극적인 주장을 제기한다.⁶⁴⁾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주의 실현으로 인해 남녀평등 핵가족화가 정착 되었으므로 좁게 간막은 여러 개 방이 필요 없다. 침실-객실-부엌을 기본으로 하자.
- 2) 짙은 나무의 건축재료를 벽돌 기와 시멘트로 대체 하자.
- 3) 부뚜막과 온돌을 개조하자. 온돌은 없애야 하지만 경제력이 미흡하므로 온돌용 괘들과 규격 구들장을

64) 박경휘 : 「조선족 주택개량의 제문제」, 「조선족 민속연구」 제1권, 연길, 1991, 60-69쪽.

개발하자.

- 4) 평면적 생활을 립면적(입식) 생활로 전환하자.
- 5) 새로운 가전제품 등의 사용을 위해 층고들 높이고 실내를 개방하자.
- 6) 지붕 창문살 등 수식적 요소에서 민족적 양식을 존중하자.

그의 주장에 납득할 점이 많지만, 온돌폐지론은 지나치게 漢族式 생활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 보인다. 정주간과 온돌은 이미 불변의 요소로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연변조선족 주거의 환경을 개선하는데에 '민족적 양식'을 보존하려면 온돌과 정주간 공간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평면적' 생활과 '립면적' 생활이 양립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드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연변조선족 주거의 원형은 이미 해방이전 정착단계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함경북도의 주거형식이 주류를 이루며 정착되었다. 비단 함북의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 뿐 아니라 '정주간 있는 외통집'도 거주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정착되었다. 물론 집단이민촌에는 그들의 출신고장에 따라 전라도와 경상도 주거형식이

도입되기도 했지만, 그들 대부분이 해방이후 합북형 주거로 고쳐졌으므로 이미 사라져 버린 형식이 되었다. 중국적 요소를 도입한 절충형들도 커다란 범주에서 본다면, 이미 형성된 원형들의 변형 혹은 절충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택의 외관이나 내부공간, 특히 부엌과 정주간의 존재는 漢族住居 보다는 조선집의 형태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어지는 소위 현대식 '벽돌집'에서는 외형만으로 조선족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어렵다. 재료와 구조가 바뀌면서 민족적 형식이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공간에서는 민족적 형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내부에 중국적 요소가 채용되었다고는 하지만 구조를 이루는 온돌과 정주간 형식이 존재한다.⁶⁵⁾

현지 조선족 학자들이 인식하는 조선집의 특징은 온돌의 존재이다.⁶⁶⁾ 온돌과 조선족과의 관계는 재차 강조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정주간의 존재가 延邊주거의 특징적 요소일 것이다. 그렇다고 합북형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대로, 정주간 자체도 다양한 평면형식으로 변모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주간을 중요한 공간요소로 가지고 있되, 그것의 구성형식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연변형 주거 평면구성의 중요한 유형적 사실이 될 것이다.

함경북도 마을과 주거의 배치형식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연변주거와의 차이를 알 수

는 없다. 그러나 연변조선족 마을의 구성형식이 특정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상기한다면, 함북의 마을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일 것이다. 곧, 인위적 택지 분할과 규칙적 배열, 그에 따른 밀집화된 집들 간의 배열, 그리고 정치경제사적 변화를 수용한 내부공간과 부속시설의 특징이 延邊조선족 마을구성의 유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연변조선족의 주거만큼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필요한 예도 많지 않다. 개척과 정착의 역사에 따른 마을의 구성적 성격, 초기에 도입된 출신지역별 다양한 주거형식과 연변형으로의 변화, 사회주의 체제가 지시한 주거공간의 변화, 문화집변에 의한 절충식 주거의 출현, 도시적 환경의 적응, 현대적 개량의 방향성 등등. 역사 문화권 정치 입지 시대성 등 주거에 관계되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대상을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에서 연변조선족 마을과 주거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고, 현재도 변화의 와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한과는 다른 역사적 체험, 곧 집단이민과 대약진과 문화혁명이라는 집단화 공유회 단계를 겪으면서 변화 정착되는 과정은 정치 경제적 요인이 주거문화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사실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변조선족 주거에 관한 극히 개괄적이고 기초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충분치 않은 자료로 일반화시킨 면도 강하다. 특히 지표조사 단계에서 개별주거의 배치형태가 정확히 조사되지 못한 점은 매우 심각한 한계이다. 주거의 형식이란 살림채의 평면구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운 교통편과 사전정보의 미흡, 짧은 조사기간 등의 이유로 대상지역이 조선족 밀집지역에 집중된 지역적 한계가 있다. 한족과 잡거 비율이 높은 和龍 教化지구의 대상이 추가로 조사되어야 연변의 주거를 일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을 전체의 구성에 대한 정확한 실측조사가 부족한 것도 중대한 한계로 자각한다.

소수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연변조선족주거의 대

65) 漢族들이 생각하는 조선족 주거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유형적 성격을 더욱 뚜렷이 정의할 수 있다. "배치는 남향을 고집하지 않고, 집한채로 구성되며 마당과 담이 거의 없다. 가옥의 측면은 옆집과 바짝 붙여서 마을 전체 배치는 行列式이다. 생활은 가옥 내부에서 이루어져 마당 중심의 한족집과는 크게 다르다. 외관은 아름답고 처마의 선이 완만하며 집세가 낮고 평평하다. 처마가 깊고 마부가 돌출되어 입체감이 난다." (張駁震 : 「吉林民居」, 中國建築工業出版社, 北京, 1983.) 배치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다 할 수 있으나, 외관에 대한 것은 매우 상대적 평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延邊漢族住居와의 두드러진 차이가 되기도 한다.

66) 김광택 : 「연변조선족민가」, 「조선족민속연구」 제1권, 1991, 48쪽.

강을 이해할 수 있었던 점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누락된 지역의 조사가 보완된다면 더욱 깊은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압록강 상류의 長白自治縣, 通化-集安의 조

선족 주거, 평안도와 연계가 깊은 遼寧省 압록강변 일대의 조선족 주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백형, 료녕형 등의 조선족 주거가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광택 : 「연변조선족 민가」, 『조선족민속연구』 제1권, 延吉, 1993.
 김내창 : 「랑통집의 유래와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조선고고연구』, 평양, 1989. 3.
 김동화+김승철 : 「당대 중국조선족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延吉, 1992. 12.
 김순림 외 : 「오늘의 연변」 (I), 연변인민출판사, 延吉, 1991.
 김일진 : 「삼합진 북흥 1대의 초가집」, 『청구』 사보, 대구, 1994. 1-2.
 김일진 : 「도문시 백통촌 초가집」, 『청구』 사보, 대구, 1994. 3-4.
 리종묵 : 「우리 나라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과학원출판사, 평양, 1961.
 리화선 : 「조선건축사」 (I),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평양, 1989.
 박경휘 : 「조선족 민속연구」, 료녕민족출판사, 瀋陽, 1987.
 박경휘 : 「조선족 주택개량의 재문제」, 『조선족민속연구』 제1권, 延吉, 1991.
 심혜숙 : 「중국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분포」, 연변대학출판사, 延吉, 1993.
 황철산 : 「우리나라 과거주택의 유형과 그 형성발전」, 『고고민속』, 3호, 평양, 1965.
 한상복+권태환 : 「중국 연변의 조선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울, 1992.
 高原一秀 : 「滿洲開拓地の建築」, 『建築雜誌』 57-699, 東京, 1943. 6.
 愼山武嶮 : 「北鮮地方の住宅について」, 『朝鮮と建築』 19-12, 1940.
 金奎方 外 : 「延邊經濟史」, 延邊人民出版社, 延吉, 1990.
 金熱燁+郭有等 : 「發展中的延邊」 (下), 延邊人民出版社, 延吉, 1990.
 張馭襄 : 「吉林民居」, 中國建築工業出版社, 北京, 1983.

The Outline of Villages and Dwellings of the Korean Immigrants in Yen-Pien Area of China

Kim, Bong Ryol

(University of Ulsan,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This paper is the result of the researches and the field surveys of the villages and the dwellings of Korean immigrants in Yen-Pien area, north-eastern China. This study aims to pursue both of the origin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ir settlements and dwelling types from late 19C to the present. Their processes are too complex to analysis by single view-point. I have eyes to interpret them from three points: 1) correspondences between the dwelling types and the economic-political history of their region, 2) cultural assimilation with the native dwelling types, and 3) the direction of their modernization with the economical development of modern China.

Three village types have been pioneered: 1) the villages of individual immigration, 2) the villages of planned group immigration, and 3) the villages of socialist reform. Villages of 1) were composed of organic village patterns and various shaped dwelling lots on the sloped site; villages both of 2) and 3), grid patterns and uniformed lots on open fields. Historically, villages of 1) were pioneered before 1931; villages of 2), 1936-1945; villages of 3), from 1945.

Each of dwelling types had strong relations with the village types to which it belonged. Before 1931, dwellings were built up based on so called "Ham-buk dwelling type" which was dominant in north-eastern Korea. In the era of group-immigration, various dwelling types were flew into Yen-Pien from southern Korea. In modern China, their southern types were changed into Yen-Pien type as similar as Ham-buk type. After 1945, with the Great Leap Forward and the Cultural Revolution, as communization of individual properties and reorganization of rural communities, each of dwellings became smaller and simpler in aspects of scales as well as functions.

There are two types in Yen-Pien dwellings, those are 'single-file' and 'double-file' type. Three sub-types of latter are 'six-bays', 'eight-bays', and rarely 'ten-bays'. The most common element of all types is Chong-ju-k'an; which is large room with heated floor, open to kitchen.

Now, modern dwellings of Korean immigrants are changing their spatial compositions, materials, and structures. With cultural assimilation as well as modernization, especially in urban areas, they are compelled to accept the elements of Chinese dwellings. But the spatial element of "Chong-ju-k'an", which is the core element of Yen-Pien dwelling type, never fade away nor is changed.